

대화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 교육*

고 시 용

원광대학교

〈요 약〉

본고는 대화의 관점에서 소태산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고 원불교 교육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현대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먼저 대화에 대한 원불교의 교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태산의 대화가 수록된 『대종경』을 연구범위로 정하고 대화유형과 대화구조를 분석하여 교육적 특성을 밝혔다.

소태산의 대화는 대부분 ‘시작화행 - 긍정응답’ 구조를 띠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이해와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의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이동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질문화행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소태산의 제2 대화이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되묻기 - 역제안의 화행 빈도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소태산의 교육방식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으로 작용하며 유도질문과 지적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종경』의 대화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태산은 자신의 구도와 깨달음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중을 향한 설법이나 훈계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대일로 만나서 상대로 하여금 가르침과 깨침을 얻도록 하는 대화법을 즐겨 사용했다. 둘째, 소태산은 자신이 직접 대화주제를 상정하거나 문제를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대화 상대자로 하여금 알고 싶은 문제와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표현하도록 했다. 셋째, 소태산은 대화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대화자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쳤다. 이를 종합해볼 때 소태산은 대화상대자를 일대일로 만나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원불교의 교육방법으로 회화 · 문답 · 감응 · 해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환, ② 학습을 촉진하는 실제적 문제 중심, ③ 성찰할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동을 강조하는 학습, ④ 촉진자로서 지도자”라는 특성이 드러나며 이는 문제중심학습(PBL)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소태산의 대화와 원불교의 훈련법에 근거한 PBL 방식을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학습·지도방안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핵심 주제어: 대화, 대중경, 훈련법, 회화, 문답, 감정, 해오, 문제중심학습(PBL)

I. 서 언

원불교의 성립은 소태산 대중사(少太山大宗師, 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의 깨달음으로 비롯되었다. 나아가 대각개교 이후 소태산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제법(制法)’과 ‘전법(轉法)’으로 정리할 수 있다.¹⁾ 제생의세를 위한 원불교의 교법을 제정한 것이 제법이요, 그 대도정법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세상에 널리 전파한 것이 전법이다. 결국 제법과 전법으로 원불교가 성장발전을 지속해왔으며 제법과 전법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단연 ‘대화’를 빼놓을 수 없다.

예컨대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의 정신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만일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풍기가 생기거든 그 바로잡을 방책을 연구하되, 말로써 할 일은 말로써 하고 몸으로써 할 일은 몸으로서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전환에 노력할 것이니라.」²⁾고 소태산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는 대중을 교육하고 교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대화에 상응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회화, 담론, 토론, 의논, 대담, 면담, 상담, 문답’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의미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대화참가자들의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넓은 범주에서 대화의 개념에 포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대화의 관점에서 원불교 교육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원불교 교리사상에 있어서 대화에 대하여 구명(究明)하고 원불교 경전 중에서 소태산의 언행록인 『대중경』에 나타난 대화구조와 대화유형을 분석해봄으로써 원불교 교육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소태산의 대화법에 나타난 원불교 교육의 특성을 살려서 현대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김성천의 「소태산 대중사의 상담원리에 대한 서설적

1) 『범어』, 제1 기연편 18장 참조.

2) 『대중경』, 제13 교단품 41장.

연구』(1987)와 김성장의 『소태산의 교화상당 원리와 실제』(1994)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소태산의 대화법을 연구 분석하여 그 전개 과정과 유형을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소태산의 대화방법과 교수법 양상을 연구 분석하고 대화의 관점에서 원불교 교육의 특성과 의사소통의 특징을 드러냄은 물론이요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대화방법과 종교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II. 원불교 사상에 있어서 대화

1. 소태산의 자수성각(自修成覺)과 대화

먼저 대화에 대한 원불교의 교리적 근거를 찾아보기에 앞서서 소태산의 구도과정과 대각의 상황을 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소태산의 구도는 7세 되던 해 문득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하는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우주자연에 대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식 체계에 도전하고 의심하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직접 실행해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문 의심은 20여 년간의 구도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

그의 구도와 대각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화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원불교교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1세 때 마음리 선산 묘제(先山墓祭)에 참례하셨다가, 산신을 먼저 제사하고 선조를 뒤에 제사함을 보시고 친족 중 한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산신은 크게 신령하다 함을 들으시고는 나의 이 모든 의심을 산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어, 그 날 부터 내심(內心)에 산신을 만나기로 작정하시었다. … (중략) … 16세 되시던 정월, 환세 인사차로 처가에 가셨다가, 마침 마을 사람이 고대 소설(朴太傳傳 趙雄傳 등) 읽는 것을 들으시는 중,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사(道士)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지라, 대종사의 심중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자 하던 산신은, 5년간 한결같이 정성을 들였으나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 가히 믿을 수 없을 뿐 더러, 그 유무를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것인즉, 나도 이제 부터는 저 소설의 주인공 같이 도사 만나는 데에 정성을 들인다면, 도사는 사람이라 반드시 없지도 아니하리라.」 생각하시고, 전날의 결심을 도사 만날 결심으로 돌리시었다.³⁾

3)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2장 소태산 대종사, 3.대종사의 구도. 이와 관련한 대화내용은 손정윤,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익산: 원불교출판사), 1984, 115-136쪽 참조.

22세 때 부터는 도사 만날 생각도 차차 단념하시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하는 한 생각만 점점 깊어져 갔다. … (중략) … 25세 때 부터는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하는 그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어, 점점 행하여도 행하는 줄을 모르고, 말하여도 말하는 줄을 모르며, 음식을 드시어도 드는 줄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⁴⁾

원기 원년(1916, 丙辰) 음 3월 26일 … (중략) … 그날 조반 후, 이웃에 사는 몇몇 마을 사람이 동학의 『동경대전』을 가지고 서로 언론하는 중, 특히 「오유영부 기명선약 기형태극 우형궁궁(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이란 귀절로 논란함을 들으시매, 문득 그 뜻이 해석되는지라, 대종사 내심에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시었다. 얼마 후, 또한 유학자 두 사람이 지나다가 뜰 앞에 잠깐 쉬어 가는 중, 『주역』에 「대인 여천지합기덕 여일월합기명 여사시합기서 여귀신합기길흉(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이라는 귀절을 가지고 서로 언론함을 들으시매, 그 뜻이 또한 환히 해석되시었다. 이에 더욱 이상히 여기시어 「이것이 아마 마음 밝아지는 증거가 아닌가」하시고, 전 날에 생각하시던 모든 의두를 차례로 연마해 보신즉, 모두 한 생각에 넘지 아니하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시었다.⁵⁾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태산의 생애에 있어서 구도-입정-대각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단초는 다름 아닌 대화이다. 대화를 통해서 구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고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과 깊은 침묵의 대화로 빠져들었다. 나아가 오랜 고행 끝에 기분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며 새로운 기운이 감돌아 심독희자부(心獨喜自負)⁶⁾하는 대각의 심경 역시 대화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소태산은 대화를 흘러가는 이야기로 소홀이 여기거나, 단순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의사전달의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인생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호작용이며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수성각(自修成覺)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스스로를 일깨웠다. 이러한 까닭에 소태산의 구도는 ‘대화를 통한 자발적 고행’이었고 ‘내면을 향한 침묵의 대화’를 거친 대각은 ‘대화를 통한 내면적 확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는 소태산의 생애와 원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모티브를 제공했다.

Carl R. Rogers(1902-1987)는 학습의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미 있는 학습은 스스로 시작한 학습이다. 자극이나 충동이 외부에서 올지라도 발견하고 파악하며 이해하는 능력은 내부에서 온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은 파급된다. 그것은 학습자의 행동,

4)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2장 소태산 대종사, 4.대종사의 입정. 이와 관련한 대화내용은 손정윤, 위의 책, 136-151쪽 참조.

5)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2장 소태산 대종사, 5.대종사의 대각. 이와 관련한 대화내용은 손정윤, 위의 책, 155-168쪽 참조.

6) 일이 매우 잘 된 것을 보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것. 소태산 대종사가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 일원의 진리를 크게 깨쳤을 때의 심경을 심독희자부 했다고 전한다(『대종경선외록』, 4.初度異蹟章 2절 참조).

태도 심지어는 인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의미 있는 학습은 학습자 자신에 의해서 평가된다. 의미 있는 학습이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인도해주는지, 학습자가 경험하고 있는 무지의 어두움을 밝혀주는지의 여부를 자신이 알게 된다. 또 평가의 중심이 분명히 학습자의 내부에 있다.⁷⁾

소태산은 자신의 구도과정을 주체적으로 정성껏 지속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self-initiated learning)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거쳐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과 평가를 소태산이 스스로 지속하고 주도할 수 있게 만든 변인(變人)이자 동인(動因)은 다름 아닌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화는 소태산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2. 대화의 교리적 근거

대화는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행위나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을 건 관계의 요소이고 의미의 상호교제이다. 그러므로 대화는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원리로서 중요시된다. 따라서 원불교 교리에 있어서 대화가 중요시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원불교 교리의 정체성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⁸⁾으로 드러난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 종교간 대화나 종교다원의 담론이 가능해지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체득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에 다양한 유형의 대화를 훈련과목으로 지정했다.⁹⁾ 정기훈련 과목 가운데 하나로 ‘회화’를 지정하고 상시훈련 중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문답·감정·해오를 지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화(會話)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यो,¹⁰⁾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 1) 상시용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問答)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鑑定)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7) Carl Rogers著, 연문희譯, 『학습의 자유』(서울: 문음사, 2002), 41쪽.

8)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9) 원불교에서는 교화, 교육, 훈련 등이 혼용되어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10)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解悟)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¹¹⁾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태산은 공부인들로 하여금 ‘회화, 문답, 감정, 해’이라는 구체적인 대화방법을 정기·상시를 물론하고 실제적으로 훈련하도록 가르쳤다. 이에 따라 법회 시간에 설교를 듣는 교도가 설교하는 교무에게 원불교의 교의(敎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법의문답(法義問答)’을 1940년(원기25)경부터 법회순서에 삽입¹²⁾한 것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 소태산의 조치였다. 교도가 교리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법회시간에 묻고 그 해답을 얻어서 차츰 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예정이나 계획이 없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하는 ‘수시설교(隨時說敎)’¹³⁾를 권장한 점도 주목할 바이다.

뿐만 아니라 소태산은 계문 가운데 ‘공중사(公衆事)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¹⁴⁾라는 조항을 밝혔다. 공중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대중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며, 설사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대중의 뜻이라면 따르고 협조하도록 한 것이다. 대중의 뜻을 따를 때 대중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자연히 서로 화합 단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사(公事)제도를 두어 교당이나 기관에서 하루 일을 시작하려는 아침시간이나, 하루 일을 마치는 저녁시간 또는 그 외에 적당한 시간에 임원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해 일을 계획·평가·반성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예(禮)의 근본정신¹⁵⁾은 살리되 그 형식은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예전』¹⁶⁾ 가운데 ‘통례편’을 통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의규범을 밝혔다. 그 내용에는 ‘언어와 응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수록되어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12) 『예전』, 제3 교례편, 제3장 법회, 2.월례법회 참조.

13) 수시설교는 『육대요령』(1932)에 정기훈련 11과목의 하나로 들어 있었으나 훗날 『불교정전』(1943) 편찬시에 제외되었다.

14) 『정전』, 제3 수행편, 제11장 계문, 2.특신급 십계문.

15) ‘공경(恭敬)·겸양(謙讓)·무계교(無計較)’라고 밝혔다. 공경은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공경 일념을 잃지 않는 것이고, 겸양은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무계교는 천만 예법을 행할 때에 항상 내가 실례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방의 실례에 계교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16) 소태산이 1926년(원기11)에 허례를 폐지하고 예(禮)의 근본정신을 드러내고자 ‘신정(新定)의례’를 제정한 후, 1935년(원기20)에 『예전』을 편찬 발행하였다. 그 후로 더욱 수정 보완하여 1968년(원기53)에 다시 발행하였다.

3.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공손히 들어서 그 요령을 잘 기억할 것이며, 자기의 말도 또한 간명히 하여 그 요령이 확실하게 할 것이요.
4. 대화는 상대방의 말이 끝남을 기다려서 하며, 또는 자기의 말만으로 시간을 독점하지 말 것이요.

... (중략) ...

10. 대화할 때에 친소를 막론하고 과한 농담이나 껀변이나 상대방을 모멸하는 언사와 태도를 삼갈 것이요.
11. 대화할 때에 학벌이나 기술이나 자기 집의 권세나 재산 등을 자랑하는 언사와 태도를 삼가며, 또는 자기의 공상을 늘어놓지도 말 것이요.
12. 대화하는 가운데, 남을 비방하고 조소하는 말을 삼가며, 사람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 것이요.
13.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상대한 사람의 과실(過失)과 단점을 지적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14.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말이 혹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문무답(有問無答)하지 말 것이요.
15. 대화하는 가운데 혹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대화하는 예의는 잃지 말 것이니라.¹⁷⁾

위와 같이 소태산은 대화를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의사전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자 예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인식했다. 물론 교육의 방법으로 ‘심교(心敎), 행교(行敎), 언교(言敎), 엄교(嚴敎)’¹⁸⁾를 밝히고 이신선지(以身先之)의 교화¹⁹⁾와 무언(無言)의 가르침²⁰⁾을 매우 중요시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원불교 교리에 교육방법으로서 대화가 정기훈련법(수시철교, 의견교환, 회화), 상시훈련법(문답, 감정, 해오, 범의문답), 『예전』(언어와 응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17) 『예전』, 제1 통례편, 제7장 언어와 응대.

18) 『대종경』, 제4 인도품 45장.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교(心敎)라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行敎)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세째는 언교(言敎)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언(嘉言) 선행(善行)을 많이 일러 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체받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타일려서 가르치는 것이요, 네째는 엄교(嚴敎)라 이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成人)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19) 『대종경』, 제13 교단품 41장. 『법어』, 제8 응기편 17장 및 제12 공도편 51장, 53장 참조.

20) 『정전』, 제3 수행편, 제5장 의두요목 5조, 『대종경』 제13 교단품 42장 및 『법어』 제9 무본편 53장 등을 참조.

Ⅲ. 소태산의 대화법과 교육적 특성

1. 『대종경』의 대화구조

대각을 이룬 소태산은 훗날 원불교 4대 성지가 되는 영광·부안·익산·진안을 비롯하여 서울·부산·전주·금강산·봉서사·박람회장 등 여러 곳을 내왕하며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구전심수(口傳心授)의 법문을 설하였다. 나아가 소태산이 열반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수기응변(隨機應變)으로 설한 법문을 수합하여 1962년(원기 47) 총 15품 547장으로 정리하여 종합 편찬한 것이 『대종경』이다. 따라서 『대종경』은 대화를 주제로 원불교를 연구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종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의(解義)를 기본으로 소태산의 사상을 단편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조명²¹⁾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해 살펴보는 정도²²⁾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소태산의 대화방법을 살펴보고 교수법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종경』 전체내용을 범위로 삼아 총 190개의 대화를 발견하였다. 소태산의 대화 190개장은 『대종경』의 전체 547개의 장에 대비할 때 약35%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태산 대화구조의 특성과 대화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머지 65%의 『대종경』 내용은 소태산이 일방적으로 청중에게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독화(獨話)에 해당하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하였다.

『대종경』의 대화유형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실제적이고 즉흥적으로 수행되는 ‘즉흥적 자연대화’이며, 대화 참가자가 동일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교대하며 발화하는 ‘근접대화’이다. 참가자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2인 또는 그 이상의 집단대화’로서 개인적, 반공개적이거나 공개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종경』 속에서 소태산과 대화하는 인물은 실로 다양하다. 소태산의 모친, 부인, 아들, 동생 등 가족은 물론이요 정남정녀(貞男貞女), 선원(禪院) 대중, 일반교무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실명으로 등장하는 소태산의 제자는 송규(鼎山, 1900-1963)를 비롯하여 69명이다. 그밖에 백학명(1867-1929)²³⁾·안창호(島山, 1878-1938)와 같은 인물과 선승, 불교신자, 천주교인, 목사, 동학교인, 증산교인 등 종교인과 일경(日警), 사찰단 일행, 아이, 청년, 걸인, 창부(娼婦)까지도 등장한다. 특히 예수교 장로, 동학교인, 증산교인, 유학자 등

21) 박길진의 『대종경 강의』(원광대학교출판국, 1983), 한정석의 『원불교 대종경 해의 上』·『원불교 대종경 해의 下』(도서출판 동아아시아, 2001), 류성태의 『대종경 풀이 上』·『대종경 풀이 下』(원불교출판사, 2006) 등이 있다.

22) 송인걸, 『대종경 속의 사람들』(월간원광사, 1996)을 들 수 있다.

23)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의 고승. 내소사·월명암 주지를 거쳐 내장사 주지를 지냈으며, 불도수련과 교리전도에 힘쓰고 반선반농(半禪半農)을 권했다. 월명암과 봉래정사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친교가 깊었고, 선문답을 자주 했다.

다양한 종교인들이 소태산과 대화를 통해 귀의하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대종경』 각 품에서 발견한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여 수록 장과 개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대종경』의 대화자료 수집 분류

품명(대화 수)	소태산 發問 수록 장	제자 質問 수록 장	기타 話行 수록 장
1. 서 품(02)	10		11
2. 교의품(19)	28,29,39	2,3,4,5,6,9,10,11,12,15,16,17,24,27	25,26
3. 수행품(20)	7,13,19,26,54	15,17,21,24,27,29,33,36,63	11,20,32,34,39,40
4. 인도품(22)	8,15	1,9,18,50,55,59	6,17,19,20,23,27,31,35,36,44,49, 51,53,54
5. 인과품(07)	30,32	8,9,14	21,31
6. 변의품(40)	1,2,16	3,4,5,6,7,8,9,10,11,12,13,14,17,18,1 9,20,21,22,23,24,25,26,28,29,30,31, 32,33,34,35,36,37,38,39,40	15,27
7. 성리품(16)	14,15,17,24,26,28	16,20,21,22,23,29	12,13,18,30
8. 불지품(09)	6,21,22	5,7,19,20	17,18
9. 천도품(13)		12,13,14,29,30,31,32,33,34,35,36,3 7,38	
10. 신성품(04)	9	3,18	16
11. 요훈품(00)			
12. 실시품(15)	13,30	3,5,7,11,12,28	2,9,10,22,27,29,33
13. 교단품(10)	11,13,15	3,9,12,24,35	2,29
14. 전망품(12)	4,14	7,8,10,11,12,13,16,17,18,30	
15. 부촉품(01)	8		
전체(190)	34개	113개	43개

다음으로 『대종경』의 대화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화구조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나뉜다. 우선 거시구조는 대화의 시작단계, 중간단계, 종료단계 그 밖의 주변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각 대화단계는 여러 개의 대화행위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미시구조는 대화이동과 대화화행으로 이루어진다.²⁴⁾ 『대종경』에 수록된 소태산의 대화는 대부분 최소대화²⁵⁾로 인접쌍(adjacency pair)²⁶⁾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구조화’란 ‘미시구조화’를 의미한다.

24) 김계영, 『논어의 대화구조와 대화유형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3쪽.

25) 말할이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화행으로만 재구성되어진 대화구조를 말한다.

26) 질문-대답, 비난-사과와 같이 발화순서 교체를 수반하며 수행된 두 개의 화행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뜻한다. 회화분석론에서는 인접쌍이라고 하며, 대화문법론에서는 대화이동 연속체(sequence)라고 한다.

아울러 『대종경』의 대화는 대부분 ‘시작화행 - 긍정응답’ 구조에 해당된다.²⁷⁾ 그것은 정보의 이해와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의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이동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질문화행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종경』의 대화는 ‘질문-반응의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화행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해 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작화행을 소태산과 제자(기타)로 구분하여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측은 어느 쪽인지를 분석한 결과, 제자(기타) 측이 주로 정보를 요구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른바 ‘(소태산)대종사 물으시기를’로 시작하는 대화구조는 13개품 34개장에 나타나며 ‘한 제자(또는 아무개) 여쭙기를’로 시작하는 대화구조는 12개품 113개장에서 확인된다. 이는 각각 『대종경』 중 대화구조가 나타나는 전체 190개장의 약 18%와 약60%에 각각 해당하며 두 유형의 합계는 전체 대화의 약 78%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대종경』의 대화구조는 문답의 화행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제1 대화이동에서 질문화행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자의 물음에 소태산이 응답하는 형식이 가장 많다는 특징을 언급할 수 있다. 소태산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화행보다 제자들의 질문에 소태산이 응답하는 대화이동이 약 3.5배가량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자들의 질문을 제1 화행으로 하는 『대종경』에 나타난 소태산의 제2 대화이동에 나타난 화행과 출현빈도를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질문에 대한 소태산의 제2 화행과 그 출현빈도

순 위	화 행	빈 도 수	백분율(%)
1	대 답	94	83.2
2	되 물 기	8	7.1
3	역 제 안	3	2.7
4	진 술	2	1.7
5	거 절	2	1.7
6	반 박	1	0.9
7	이의제기	1	0.9
8	반대주장	1	0.9
9	묵묵부답	1	0.9
합계		113	100

27) 대화구조는 제1 대화이동, 제2 대화이동, 제3 대화이동의 전개에 따라 의사소통의 목적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제1 대화이동과 제2 대화이동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연속체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화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시작화행 - 긍정응답구조 ② 시작화행 - 부정응답구조 ③ 시작화행 - 결정준비 화행구조 ④ 시작화행 - 결정회피 화행구조 ⑤ 시작화행 - 역시작 화행구조.

위의 표를 보면 『대종경』 대화의 제2 대화이동에서는 대답화행이 83.2%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답화행은 질문화행에 대한 협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다음으로 되묻기 화행의 경우, 앞선 화행에 대해서 재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선행화자의 대화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는 의도적으로 선행화자의 질문을 재구성하여 의사소통의 목적을 다시 선행화자에게 돌려서 답을 듣고 일부 조건적인 부분의 수정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강조하는 화행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소태산의 대화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태산의 교육방식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으로 작용하며 유도질문과 지적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화 참가자의 사회적 관계 면에서 소태산의 대화는 ‘불평등 대화구조’를 보인다. 물론 소태산은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과 평등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화자는 제자들이었으며, 소태산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며 가르침을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 대화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2. 소태산의 대화에 나타난 교육적 특성

소태산의 대화는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법(傳法)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종경』의 대화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특성을 정리해보고 소태산의 대화방식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소태산은 자신의 구도와 깨달음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중을 향한 설법이나 훈계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대일로 만나서 상대로 하여금 가르침과 깨침을 얻도록 하는 대화법을 즐겨 사용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대화법은 바로 질문이다. 훈련 과목에 문답을 지정함은 물론이요,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고 대중이 함께 해답을 듣도록 법회에 ‘질의문답’ 순을 넣기도 했다.²⁸⁾

소태산이 수시로 질문을 통해 제자들을 일깨웠듯이 제자들이 소태산에게 가장 많이 한 언어 행위도 질문이다. 소태산은 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다. 물론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도 하였으나, 종종 되묻기의 화행을 시도했다. 먼저 묻는 사람의 질문을 수용하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되묻기를 통해 묻는 사람이 스스로 대답

28)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원불교출판사, 1985), 107쪽. 「원기25년 동선 어느 예회에 대중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번엔 부산갔을 때 부산 회원들의 공부하는 것을 들은즉 회원들이 일주일간 집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감각건이나 감상건이나 교과서 중 모르는 조목을 각자 공책에 적어 가지고 와서 예회날 제출하면 교무는 예회에서 일일이 그 해답을 해 주는 고로 일반이 다 그 조목을 알게 되어 부산 회원들은 교리가 고루 밝아진다고 하더라. 그 방법이 아주 좋으니 총부에서도 그 법을 써서 교과서 중 모르는 점이나 공부 생활 중 의심된 점이 있거든 공책에 적어 가지고 와서 대중이 함께 해답을 듣게 하라.” 그 후부터 예회순서에 질의문답 순을 넣게 되었다.」

을 하는 도중에 깨달음을 얻도록 만드는 교육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답 대신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묻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침을 얻도록 하는 소태산의 교육법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예²⁹⁾를 들면 다음과 같다.

소태산: (등잔불을 가리키며)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 같이 어두운고?

송 규: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저를 바로 비취 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상(相)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 광명을 덮으므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소태산: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自他)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될꼬?

송 규: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에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소태산: 그대의 말이 옳다.³⁰⁾

목 사: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된다고 봅니다.

소태산: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목 사: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으니 이런 사람들은 계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소태산: 다만 그런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합니까?³¹⁾

한사람: 이러한 세상에도 건성한 도인이 있겠습니까?

소태산: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 건성한 도인이 많이 나와 할 것이 아닙니까?³²⁾

둘째, 소태산은 자신이 직접 대화주제를 상정하거나 문제를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고 싶은 문제와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표현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태산은 무엇보다도 청자 중심의 대화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29) 이하의 각 사례들은 『대종경』 원문을 근거로 논자가 재구성하였다.

30) 『대종경』, 제3 수행품 26장 참조.

31) 『대종경』, 제2 교의품 25장 참조.

32) 『대종경』, 제12 실시품 11장 참조.

소태산: 어디를 가십니까?

노부부: 며느리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입니다.

소태산: 그대들은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릅니까?

노부부: 산 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소태산: 그대들의 집에 있는 며느리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까닭입니다.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 봄이 어떻겠습니까?

노부부: 어떻게 공을 들입니까?

소태산: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며느리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며느리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³³⁾

이춘풍: 지난 번에 저의 자식이 산에 갔다가 포수의 그릇 쓴 탄환에 크게 놀란 일이 있사운데, 만일 그 때에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 하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사울지 취사가 잘 되지 아니하나이다.

소태산: 그대들의 생각대로 한 번 말하여 보라.³⁴⁾

셋째, 소태산은 대화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대화자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쳤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소태산은 같은 질문에도 그 사람에게 알맞은 답을 함으로써 질문자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隨機應變)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 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는』³⁵⁾ 대각여래의 교육방법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본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소태산: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제자 1: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제자 2: 인생의 요도를 배우다 하겠나이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않았다.)

소태산: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 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 때에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

33) 『대종경』, 제2 교의품 15장 참조.

34) 『대종경』, 제4 인도품 55장 참조.

35) 『정전』, 제3 수행편 제17장 범위등급.

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³⁶⁾

이상으로 소태산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육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태산은 대화상대자를 일대일로 만나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현대교육학적 입장과 연관 지어서 분석해보면 구성주의에 근거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³⁷⁾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장에는 대화를 통한 원불교 교육의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V. 대화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 교육의 시사점

1. 교육방법으로서 대화의 전제조건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 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니라.』³⁸⁾는 소태산의 말처럼 대화는 원불교 교육에 있어서 중차대한 방법의 하나이다. 아울러 교육방법으로서 원불교의 대화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³⁹⁾로 규정되는 법신불 사온과 이루어지는 상호교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천지·부모·동포·법륜 즉 사온(四恩)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원불교 교리에 입각한 교육은 인간과 사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불교의 대화는 구성주의와 회통된다.

구성주의는 지식을 학습자 개개인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종래에 중요시되던 '교수'개념 대신에 학습자 중심의 '학습' 또는 '학습 환경'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모형의 하나로 PBL을

36) 『대종경』, 제2 교의품 29장 참조.

37) PBL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자율적 학습 및 협동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탐색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구성주의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학습모형이다. PBL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활용하는 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은 Barrows이다. 그는 PBL을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결책을 향한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했다.

38) 『대종경』, 제10 신성품 14장 참조.

39) 『정전』, 제2 교의편, 제1장 사온 참조.

들 수 있다.

PBL은 '문제'를 제시하여 그것의 해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향상'에 좀 더 초점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PBL의 특성은 실제 문제 중심의 학습이며, 모든 학습내용은 학습자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다. 수업은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SDL)과 그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방법으로서 대화는 학습자 중심, 즉 '교수(instruction)'에서 '학습(learning)'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방식에 비해 교사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고 변화된 양상을 띤다. 교사에게 있던 일방적인 권위는 학습자에게 위임되며 상호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⁴⁰⁾는 소태산의 가르침과 '스스로 훈련 서로서로 훈련'⁴¹⁾이라는 표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불교 훈련은 상호 동등의 입장에서 비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내적 동기 부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훈련 과목의 하나인 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⁴²⁾을 강조한 소태산이 의미하는 교육적인 대화는 “참여자들이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과 상대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안정된 분위기를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관은 학생을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정체성, 개인적인 요구나 열망들을 도외시하였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는 달리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과,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언어를 매개로 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화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를 수행하는 데 동등한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교육에 적용된다면 기존 교육에서의 일방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⁴³⁾ 이러한 점에서 교육방법으

40) 『대종경』, 제6 변의품 21장 참조. 이는 '나-너의 관계'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능동적 비판과 실천의 교육을 강조하는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입장과 상통한다.

41) 원불교 훈련에서 강조하는 표어의 하나로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이면서 협동하는 훈련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이끈다.

42) 『대종경』, 제3 수행품 2장 참조.

43) 박정연, 「교육방법으로서 대화의 가능성 탐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69-70쪽 참조.

로서 대화는 대화자들 간의 상호존중성과 상호수평성, 그리고 상호개방성과 상호협동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한편 소태산은 가르침을 펴 나가는 데 거의가 대화를 통해 교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대화의 기본원리는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따른 설법이였다. 따라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교사의 능력이 학생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포용할 수 있는 자질의 함양이 교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설법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를 교육방법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대화자들이 각기 주체자이면서 상호의존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는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 현대 한국 사회의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히는 ‘소통’은 우리들이 대화의 부재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갈등과 소외 그리고 충돌로 이어지는 고통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이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이라야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먼저 교사는 학생을 진실하게 대해야 하고, 인격적 존재로 수용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은 개방적인 태도와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 또한 교육이 담당해야 할 일이라 볼 수 있다.⁴⁴⁾

소태산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하여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원불교를 개교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삼학(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에 바탕을 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원불교의 구체적인 교육방법(훈련법)과 그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하는 것이다. 회화를 통해서 아무런 구속 없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혜두를 단련한다. 일정한 제목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감각 감상된 바를 정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평소 생활을 공부심을 가지고 하게 되고 자연현상이나 대인접물을 건성으로

44) 박정연, 위의 글, 72-74쪽 참조.

보아 넘기지 않게 되어 관찰력과 통찰력이 길러진다.

둘째, 어느 때든지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하는 것이다. 문답을 통해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됨으로써 상호대화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문제를 개발해야 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내적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잡하면서도 실제적 성격을 지닌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활동을 학습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언기를 주의하는 것이다. 감정을 통해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감별하여 결정함으로써 분석력과 판단력 향상을 도모한다. 지도받을 만한 스승으로부터 시비의 감정을 받고 정당한 비판과 충고를 받으며 앞길에 보감을 삼는 동시에 공부의 참된 요령을 얻어 나가는 것이다.⁴⁵⁾ 아울러 평가도구를 개발 활용하되 학습자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자에게 해오 언기를 주의하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심되는 사항을 지도자에게 제출하여 일과 이치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한다. 의심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해 깨침을 얻는데,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은 의문에 해답을 직접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의문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학습의 과정을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대화의 관점에서 원불교의 교리에 근거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교육방법으로서 대화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정기훈련의 회화, 상시훈련의 문답, 감정, 해오 등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지도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불교의 교육방법은 다음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①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환, ② 학습을 촉진하는 실제적 문제 중심, ③ 성찰활동을 강조하는 학습, ④ 촉진자로서 지도자”가 그것이며 이는 PBL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소태산의 대화와 원불교의 훈련법에 근거한 PBL 방식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45) 『대종경』, 제3 수행품 49장 참조.

V. 맺는말

본고는 대화에 관한 원불교 교리와 사상적 측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종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소태산의 대화구조를 살피고, 대화의 관점에서 원불교 교육의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현대교육에 시사점을 밝힌 연구이다.

먼저 『대종경』에서 확인되는 소태산 대화의 대부분이 ‘시작화행 - 긍정응답’ 구조를 띠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이해와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의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이동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질문화행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종경』의 대화는 ‘질문 - 반응의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화행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해 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소태산과 제자(기타)의 구분을 통해서 시작화행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측은 어떤 쪽인지를 조사한 결과, 소태산이 시작화행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약 18%로 나타났고 제자(기타)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약 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자(기타) 측이 주로 정보를 요구하고, 대화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소태산의 제2 대화이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되묻기 - 역제안의 화행 빈도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소태산의 교육방식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으로 작용하며 유도질문과 지적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종경』의 대화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태산은 자신의 구도와 깨달음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중을 향한 설법이나 훈계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대일로 만나서 상대로 하여금 가르침과 깨침을 얻도록 하는 대화법을 즐겨 사용했다. 둘째, 소태산은 자신이 직접 대화주제를 상정하거나 문제를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고 싶은 문제와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표현하도록 했다. 셋째, 소태산은 대화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대화자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태산은 대화상대자를 일대일로 만나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원불교의 교육방법으로 회화 · 문답 · 감정 · 해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환, ② 학습을 촉진하는 실제적 문제 중심, ③ 성찰활동을 강조하는 학습, ④ 촉진자로서 지도자”라는 특성이 드러나며 이는 문제중심학습(PBL)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소태산의 대화와 원불교의 훈련법에 근거한 PBL 방식을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학습 · 지도방안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부족하나마 『대종경』에 나타난 소태산의 대화를

구조적인 측면으로 분석 정리하고 교육적 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소태산의 대화를 『대종경』에 한정해서 분석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차후 본고를 바탕으로 『대종경』 이외에 『대종경 선외록』, 『월말통신』, 『월보』, 『회보』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각종 초기교서 및 기록물에 수록된 소태산의 대화를 종합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사채, 「대화의 교육적 의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 2006.
- 김계영, 「논어의 대화구조와 대화유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귀성(혜광), 「교육사」, 『원불교70년정신사』, 1989.
- 김규옥, 「교육방법으로서의 대화: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성범, 「원불교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 연구—정기훈련 11과목 과정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성장, 「소태산의 교화상당 원리와 실제」, 『원불교사상』 17-18집, 1994.
- 김성준, 「소크라테스 대화법에 나타난 대화의 구조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2, 2007.
- 김성천, 「소태산 대중사의 상담원리에 대한 서설적 연구」, 『원불교사상』 10-11집, 1987.
- 김창규, 「논어 속의 교육적 대화」, 『초등교육연구논총』 제2집,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89.
- 김창환, 「논어를 통해 살핀 공자의 교수법」, 『중국문학』 39, 중국어문학회, 2003.
- 나상호, 『원불교 회화훈련 자료집』, 원불교출판사, 1990.
- 류성태, 『대종경 풀이』 上·下, 원불교출판사, 2006.
- 박길진, 『대종경 강의』, 원광대학교출판국, 1983.
- 박미순, 「불교초기경전에 나타난 불타의 대화법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박영학, 「원불교 선시의 커뮤니케이션—변산구곡가와 관련하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8집, 2004.
- 박정연, 「교육방법으로서 대화의 가능성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현순,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의 문제점과 지도방안의 실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변형우, 「논어 텍스트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법」, 『중국언어연구』 제30집, 2009.
- 백강민, 「원불교 정기훈련과목 ‘회화’에 대한 고찰」,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손정윤,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원불교출판사, 1984.
- 송인걸, 『대종경 속의 사람들』, 월간원광사, 1996.
- 신희선,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여대생 스피치 교육의 사례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6집, 2006.
- 안승대, 「새로운 대화법 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5, 2008.
- 안인숙, 「예수의 대인 화법 연구」, 『화법연구』 6, 2003.
- 양은용, 「원불교 소태산의 학교교육제도 수용과 교육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5권, 2007.
- 양은용, 「원불교에서 본 종교간의 대화원리」, 『한국종교연구』 4집, 2002.
- 원불교영산대학, 『정기훈련 11과목 지침서』, 원불교 영산대학, 1999.
- 원불교 정화사編,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2009.
-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 원불교출판사, 1985.
- 이성택, 「훈련사」, 『원불교70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 이연길, 「해결중심치료기법을 활용한 상시훈련법의 방향모색」, 『실천교학』 8호, 원불교대학

- 원대학교, 2010.
- 이정규, 「대화적 교육방법을 통한 교육목회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혜용, 「예수의 대화 전략」,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텍스트언어학』 19, 2005.
- 한정석, 『원불교 대중경 해의』 上·下,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1.
- Carl R. Rogers著, 연문희譯, 『학습의 자유』, 문음사, 2002.

원고접수: 2010년 5월 7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 소개: 고시용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조교수
 -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 원불교교육학, 원불교경전해석학
 - ③ 주요논저: 「원불교 연구의 최근동향과 과제」, 「원불교의 혁신예법과 예전의 사회적 성격」, 「불교정전의 성립과 특징」, 「정전의 결집과 교리의 체계화」, 「원불교대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원불교 설교에 나타난 마음공부」, 「원불교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교리형성과 도교사상」, 「원불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예비전 무출신 교육교재 개발」, 「원불교 수행방법과 영성개발」, 『클릭 원불교』(공저2), 『종교(원불교)』(공저)
 - ④ E-mail: kwgksy@wku.ac.kr
-

Abstract

Won-Buddhism's Education from the View of Conversation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to contemporary educational techniques, deriving insights and methods from the teaching career and the thought of Sot'aesan, the founding master of *Won*-Buddhism. The most significant innovation found in Sot'aesan's teaching style is the role of conversation, and by investigating this role, we come to appreciate other valuable characteristics of *Won*-Buddhist educational methods. My primary source for the study is the Scripture of the Founding Master (*Taejonggyong*), which contains Sot'aesan's conversations, or Discourses. First, I examine the doctrinal foundations of *Won*-Buddhism, focusing especially on the role of conversation and clarifying educat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patterns and structures of the conversations.

Most of Sot'aesan's recorded conversations appear in the various sections of the Discourses, beginning with the 'Prefatory' section, which opens with his first words upon attaining great enlightenment, and including especially his 'Answers to Questions'. Throughout the Discourses, it can be seen that he preferred a teaching method that enabled him to clarify and explain his thoughts simply. Because of the nature of conversation, this mode best met this need. Through conversation, he could identify and focus on the precise needs of his disciples, in order to develop their understanding. In examining the structures of these Discourses,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 is the high frequency of 'question-and-answer' mode. In addition, the second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t'aesan's conversations is the overwhelming frequency of 're-questioning and further explanation'. In this way, I demonstrate that Sot'aesan's educational style makes use of an interactive and mutual method, not a unilateral one. This method enables the learners to study and correct themselves through inducing questions and pointing out one's mistakes and misunderstanding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conversations in the *Taejonggyong*, the

characteristics of Sot'aesan's educational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t'aesan enjoyed using the method of one-on-one conversation. Rather than giving lectures based on his path to enlightenment, he promoted and encouraged his disciples to be self-taught and independently awakened. Second, Sot'aesan did not choose the topics for dialogues. Instead of unilaterally deciding on a topic and relaying a preconceived message, he guided his disciples to express their innermost questions and curiosities so that they might conduct the task of finding the solutions. Finally, Sot'aesan personalized each interaction. He customized each encounter so that every interaction met the level of each disciple. This approach allowed individuals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on their own.

The overall data I have gathered concerning the points stated above demonstrate that Sot'aesan's teaching method focused on one-on-one discussions, having the disciples discovering and identifying the issues on their own, and on customization so that each disciple discovered his or her own full potential.

In further support of these findings, I also examine the educational approach of *Won-Buddhism* as laid out in *The Principal Book of Won-Buddhism*. This includes the following methods for improving conversational skills: conversation, questioning and answering, appraisal, and awakening for understanding. Through this analysis, I discovered that Sot'aesan's methods: ① talking freely and actively, ② focusing on the essential matter, proceeding to the study, ③ having a study that emphasizes the activities of introspection, and ④ having a mentor as a facilitator, were all similar to the techniques used in Problem-Based Learning(PBL). Based on this study and analysis, I believe that a new PBL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that mimics and reflects the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of Sot'aesan's teachings and the *Won-Buddhist* training method.

Key words : dialogues, Taejonggyong, practice methods, conversation, questioning and answering, appraisal, awakening by understanding, Problem-Based Learning